

트럼프, AI반도체 수출정책 변경 정부-업계 공조, 전략마련 시급

美 ‘국가 등급별’ 통제정책 폐기
말레이시아·태국 규제대상 가능성
삼성·SK, 수출전략 재검토 불가피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바이든 정부 시절 도입된 ‘국가 등급별’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출 통제 정책을 폐기하고, 새로운 수출 통제 규칙 마련에 착수했다. 특히 말레이시아, 태국 등 중국으로 미국 반도체를 재수출한 국가에 대한 통제 강화도 포함될 예정이어서 한국 반도체 업계에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다.

8일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7일(현지시간) “기존 규제는 복잡하고 관료적이며, 미국의 혁신을 저해한다”며 “보다 단순하면서 강력한 규정으로 대체할 것”이라고 밝혔다. BIS는 이달 15일 발효 예정이던 규정을 철회하고, 기존 규제를 엄격히 집행하는 동시에 새로운 수출통제 규칙을 설계 중이다.

기존 규칙은 국가를 ‘동맹국’, ‘일반국’, ‘우려국’으로 등급화해 차등 통제하는 방식이었다. 한국은 동맹국으로 수출 제한이 없지만, 일반국에 포함된 말레이시아·태국 등은 우회 수출 루트로 지목돼 새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 반도체 업계는 미·중 기술 패권 전쟁의 한가운데 있어 또다시 불확실성에 직면했다. 이 같은 미국의 정책 선회로 ‘샌드위치 신세’가 될 위기에 놓인 것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은 미국과 중국 모두에 막대한 수출 의존도를 보이고 있어 이번 조치가 실제 시행될 경우 수출 전략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하다.

정부도 즉각 대응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미국 정부에 공식 의견서를 제출하고, “한국산 반도체와 제조장비는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며 특별 고려를 요청했다. 정부는 수출 제한이 미국 내 AI 인프라 구축 및 한국 기업의 미국 투자에도 악영향

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이 지난달부터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반도체·장비 수입의 안보 영향을 조사하고 있는 와중에 나왔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 순방을 앞두고 일부 중동 국가에 대한 수출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 통제 정책이 외교·통상 협상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반도체 수출액은 107억 달러로, 전체 대미 수출의 8.3%를 차지했다. 같은 해 대미 반도체 무역흑자(78억 달러)는 한국 전체 대미 무역흑자의 14%에 달한다. 하지만 지난달 대미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31.0% 급감해 업계의 위기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제는 기술경쟁이 아닌 외교·안보 전략 속에서 반도체 수출을 바라봐야 한다”며 “미국 중심 공급망 전략에 어떻게 균형 있게 대응할지 정부와 업계간 공조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혜민 기자 hyem@metroseoul.co.kr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 체코 프라하 총리실에서 페트르 피알라(Petr Fiala) 체코 총리와 기념촬영하고 있다. 한-체코 양국은 산업·에너지·건설·인프라·과학기술 등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뉴시스

“韓-체코, 원전건설 넘어 제3국 공동진출도 협력”

‘원전산업 협력 약정’ 체결
안덕근 산업장관, 체코서 간담회
“체코 자산 활용 글로벌시장 진출”

체코 신규 원전 건설 본계약 체결은 미뤄졌으나, 한국과 체코 양국은 원전 협력을 비롯해 첨단분야 경제협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은 특히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 외에도 제3국 원전 시장 공동진출에도 협력한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 리히텐슈타인 궁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피알라 체코 총리가 임석한 가운데, 불ček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과 ‘한-체코 원전산업 협력 약정(Arrangement)’을 체결한다”며 “두코바니 신규원전 건설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비롯해 제3국 공동진출에 관해서도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특히, 체코와의 제3국 원전 공동진출이 국내 원전업계의 글로벌 진출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봤다. 안 장관은 “우리나라 원전업계는 국내에서 신한울 2기를 짓고있고 원전 추가 건설 2기를 더해 국내에서 4기에 방패장 만들어야하고 체코에 2기, 국제시장에도 얘기하고 있는게 더 있다”며 “이렇게 하다보면 사실 국내(원전)생태계가 다 커버하기 힘든 상태”라고 말했다. 이

어 “체코에 있는 두산스코파워터빈 등 자산을 활용하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 우군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오늘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해 최종 계약에는 이르지 못해 아쉬운 마음이 크다”면서도 “비운 뒤 땅이 굳듯이 어려움을 함께 겪고 이겨내는 과정에서 양국 간 신뢰관계는 오히려 더욱 굳건해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속한 시일 내 본계약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체코측과 긴밀히 소통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장관은 본계약 체결의 발목을 잡은 프랑스 전력공사(EDF)의 행정소송 제기 건과 관련해 “우리가 우선협상대상으로 선정된 당시에 피알라 체코 총리가 ‘한수원이 모든 면에서 다 압도했다’라고 했다”며 “200명 넘는 전문가가 상당히 오랜기간 정밀하게 평가했고 트집을 잡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절차적인 투명성 같은 부분에서도 조금도 의심할 부분이 없다”며 “법적인 문제 이런건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당황스러운 일이 발생한게 있지만 절대 무산된다거나 이런게 아니다”며 “잠깐 절차적으로 지연되는 부분이고, 지연된 게 시간을 소비한게 아니라 한국 원자력 산업계 신뢰를 쌓는 계기로 만들려 하고있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인프라 투자, 세계 식품시장 리딩기업 도약할 것”

》1면 ‘CJ제일제당, 日…」서 계속

해외 생산 인프라는 꾸준히 확대 중이다. 유럽에서는 헝가리 부다페스트 인근에 ‘K-푸드 신공장’을 착공해 2026년부터 유럽 전역에 만두를 공급할 예정이며, 미국 사우스다코타 수폴스(Sioux Falls)에는 2027년 완공 목표로 북미 최대 규모의 아시안 푸드 제조 시설을 건설 중이다.

현재 CJ제일제당은 미국에서 인수한 슈완스 공장을 포함해 총 20개 식품 생산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본 내

에서는 2019년 인수한 ‘교자계획’을 포함해 4개의 만두 생산시설을 가동 중이다. 이 외에도 독일, 베트남, 호주 등 글로벌 생산거점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선제적인 현지 생산 인프라 투자를 통해 K-푸드의 글로벌 저변을 넓히고, 세계 식품 시장에서 확고한 리딩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CJ제일제당은 지난해 북미에서 4조 7138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북미 시장 점유율 1위인 비비고 만두는 2

위 브랜드와 3배 이상 차이 나는 선두를 유지했으며, 슈완스의 대표 피자 브랜드 ‘레드바론(Red Baron)’ 또한 1등 지위를 한층 공고히 했다. 유럽은 처음으로 연간 매출이 1000억원을 돌파했다. 프랑스, 스페인 등 신규 국가로의 진출을 가속화하는 한편, 유럽 대형 유통채널에서 판매 체계를 확대한 점이 주효했다. 호주에서는 울워스에 이어 콜스, IGA에 입점하는 성과를 이루며 현지 주요 유통업체 매장 수의 80%에서 비비고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상상 그 이상
안성!

미래기술의 혁신과 문화의 다양성이 어우러지는
안성맞춤도시 안성

설레이는 변화가 기대되는
이젠, 안성입니다.

City of Masters
안성맞춤도시 안성